

랑세스, 친환경 고성능 타이어 공개

랑세스(Lanxess)는 9월18일(현지시간)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모빌리티 데이(Mobility Day)를 개최하고 친환경 이동성(Green Mobility) 실현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했다.



랑세스코리아에 따르면, <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위한 최신 기술>이라는 테마로 진행된 컨퍼런스에는 밥 루츠 전 GM 부회장 등 다양한 자동차 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친환경 이동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 및 솔루션 등을 토의하고, 랑세스의 독보적인 기술과 적용분야를 소개했다.

특히, 랑세스의 고성능 합성고무를 바탕으로 회전 저항 및 젖은 노면 제동력이 최고단계인 A/A 등급을 획득한 콘셉트 타이어가 첫 선을 보이기도 했다.

랑세스가 최신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제작한 A/A 콘셉트 타이어는 Nd-PBR(Neodymium Polybutadiene Rubber), SSBR(Solution-Polymerized Styrene Butadiene Rubber) 및 고무 첨가제를 사용해 제작됐으며, 회전 저항이 낮아 연비를 절감시키고, 내구성 및 접지력 등 탁월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.

랑세스의 <모빌리티 데이> 행사는 미국에 이어 2012년 안에 브라질, 유럽, 남아프리카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. <우연서 기자>

<화학저널 2012/09/19>